

**증인**  
사도행전 3:1-10

서대석 목사님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헌신예배에 와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나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아니니까 훌륭한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런데 오늘 램네프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내가 오늘 안 왔으면 큰일날 뻔 했구나 싶었다. ‘오늘 오시는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설교자가 복음만 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것만은 잘 할 수 있다 싶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는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다.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한 번 쯤은 괜찮겠다 싶었다. 내가 어릴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심방을 오시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밥을 하실 때 하얀 부분만 목사님께 드렸다. 나는 커서 하얀 밥을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금은 다 하얀 밥을 먹는다. 덕평 학교에도 흰 밥만 나온다. 그런데 덕평 한 곳에 보리밥집이 있다.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그게 맛이 없었는데, 흰 밥만 먹다 보니까 보리밥도 맛이 있었다. 여러분은 늘 흰밥을 드시니까, 오늘은 보리밥 드시고 소화하는 날 되시면 되겠다. 나는 특별한 것을 하러 오지 않았다. 찬양대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더라. 박자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한 번씩 틀리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다. (웃음) 통할 수 있겠다.’ 이 교회에는 다락방 명강사, 최고 강사들이 다 왔다 갔었을 텐데, 그분들 메시지 생각나는가? (웃음) 시대적인 종들이 왔어도 메시지가 생각 안 날 것이다. (웃음) 적을 것도 별로 없다. 편안하게 하겠다. 끝나는 시간도 마음대로라고 했는데 맞는가? 여러분이 아멘 해 주셔야 내가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편안하게 아멘 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 나는 설교 듣는 분 중에 제일 수준 높은 분이, 열심히 적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적어놓고 옆에 불신앙 또 쓰지 않나. 수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음식을 여러분은 입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음식은 코로 먹는 것이다. (웃음) 눈으로 먹어야 한다. 향기가 좋고 보기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귀로 먹는다. 소문이 잘 나야 한다. 설교는? 입으로 듣는다. 일단 아멘 해 놓고 일단 아멘 해 놓고 나면 일단 뚫리고 가슴에 담긴다. 오늘 램네프 헌신예배인데 램네프 스타일로 안 하느냐 하는데, 내가 그래도 벡타이는 램네프 스타일로 맞춰서 왔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긴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웃음)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 달라고 하던데,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웃음) 그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약간 길어질 수도 있다. 약속 늦은 분은 살짝 가도 된다. (웃음)

**서론**

일단 칠판에 그려놓고 시작하겠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그렇다. ‘증인’이다. 오늘 램네프 헌신예배인데, 램네프들은 하나 더 썰라. 여러분의 평생 비전을 앞에 써 보라. 평생 비전을 앞에 써 놓고 말씀을 들어 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가슴의 한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비전을 앞에 썰라. 대통령이라고 썰라. 안 되면 앞에 있는 장관 하면 된다.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하면 된다. 그렇게 해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자. 어머니, 아버지들도 비전을 썰라. 내 비전이 아니면 아들딸 비전이라도 썰라. 사업, 직장, 썰 놓고 기도해 보자. 1부에서 류목사님이 모세의 문제를 말씀하셨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담긴 메시지가 있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이 모세의 가슴에 언약을 심고 죽었다. 80년 뒤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은 여러분이 죽어도 성취되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교회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교회’다. (현수막에 그려진) 저 못이 지금 어디에 박히고 있는가? 돌이다. 쉽게 박히겠냐? 저게 박히려면 하나가 더 올라가야 한다. 믿음이다. 믿으면 올라간다. 돌 같은 램네프의 가슴에 믿음이 들어가면 증인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시대에 넘겨

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램네프라고 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저녁, 많은 말씀 중의 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받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참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최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각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램네프들이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말하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오순절 그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사 램네프 헌신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램네프의 가슴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램네프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한계와 낙심과 절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램네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새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신예배의 제목을 ‘증인’이라고 정했다.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증인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다. 앓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다. 어떻게 이 앓은뱅이가 일어났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앓은뱅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다. 이랬더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의논했다. “큰일 났다. 예수 이름으로 앓은뱅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불러놓고 말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름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인생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데, 무슨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정상에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결론내려야 하는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분한 이름이다. 여기에 증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완전한 이름이라는 사실에 증인 되기를 바란다.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이 되는 이름이다.” 여기에 증인 되기를 축원한다.

**1.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 : 그 자체로 충분한 그리스도**

내가 미국에서 십 몇 년 사역하는 동안 램네프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보게 되었다. 개척한지 한 3년 지나니까 여집사님이 찾아왔다.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왜 떠나느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는 바라보고 모델 삼을 램네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계 최고의 모델 램네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하나기 모델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램네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램네프를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램네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성적표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적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다. 램네프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실패, 불신앙, 낙심, 염려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1) 그러면 눈이 중요하다. 이 복음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 ① 앓은뱅이가 매일 성전에 갔지만 성전이 답을 주지 못했다. 종교화된 지 오래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다.
- ② 많은 사람들이 육신 봉사도 한다. 그러나 앓은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③ 많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돈을 던져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④ 종교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도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기를 축원한다.

(2)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어떻게 보았는가? 베드로는 앓은뱅이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행3:6). 무엇을 봤는가? 이 앓은뱅이의 문제가,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다르게 보았다.

- ① ‘앓은뱅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렇게 봤다.
- ② ‘아, 죄와 저주의 문제구나.’ 그렇게 봤다.
- ③ ‘왜 운명과 저주가 오는가? 아, 사단 문제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내게 있다.’ 이것(1-(1))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러나 영적 사실은 베드로가 본 이것이다(1-(2)). 이 눈으로 보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3)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면 앓은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째서 이 믿음이 고백되는가?

- ① 어느 날 고백했다. 마16:13-20,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 ②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19:30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았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 ③ 행2:32, 35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는 이 일에 증인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증인이었다. 인생 문제가 많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에 답이, 치유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문제를 잘 봐야 한다. 답도 잘 봐야 한다.

내가 램넌트를 두고 밤에 기도하는데 새벽 3시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 참 사랑교회 램넌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갈등, 한계, 문제, 상관이 없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된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 있는 다락방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더니, 개척교회라서 목사님 부부가 계속 현장에만 가야 하니까, 아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예 목사님이 맡아 달라’ 하면서, 아들을 나한테 맡기고 간 것이다. 열떨결에 맡기고 가시라고 했다. 장래희망을 물어보니까 축구선수라고 했다. 집에서 항상 혼자 있으니가 동네 아이들과 축구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생각을 잘 해 보라. 네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만약 축구선수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너를 미국이 아니라 영국, 스페인, 브라질로 보내셨어야 하지 않나. 비전을 바꿔라.” “목사님, 저는 비전 못 바뀌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아, 시험 들더라. (웃음) 램넌트도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한다. 목사님도 시험든다. (웃음) “너희 아버지가 너를 나에게 맡겼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정 그러면, 일주일 뒤에 테스트를 해 보자. 거기에 합격하면 너를 맡아주겠다. 독일로 보내든지 브라질로 보내든지. 하버튼 기도하자.” 좋다고 했다. 축구선수 재능을 기초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다. 특정한 자세로 몇 백 번 공을 움직인다고 하는. 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자기는 자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전 과목 낙제였다. (웃음) 하나도 통과된 게 없었다. “봐라. 네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너에게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달란트는 없다. 너는 비전을 바꿔라.” 아이가 돌아갔는데, 들어보니 1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는 것이다. 어쨌잖나. 우는 램넌트 심방가야지. 그

래서 만났다. 아이가 단박에 이야기했다. “지금부터 열심히 축구하면 안 될까요?” “너는 축구의 DNA가 이만큼도 없다.” (웃음) “그러면 뭘 해요?” “공부 해라.” “공부 못 해요.” 왜 못하냐고 했더니,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나?” “네.” “너 그분을 영접했나?” “영접했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고 했지? 그러면 됐다. 네 안에 계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해 보라.”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기도가 시작되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이야기했다. “네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름방학이 되었다. 선배를 붙여서 40일 동안 공부를 시켰다. 어떻게 되었나 하면, 대학을 뉴욕대 비즈니스학과에 합격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 (웃음)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을 왔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다. (웃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램넌트는 학업에 도전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부모님만 아멘 하는데, (웃음) 램넌트 여러분은 어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업 도전하라는 말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 일단 믿고 아멘 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다. 덩치 큰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왕과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 보라. 한 판 붙자.” 40일 동안 고향미르는데 아무도 못 나간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나. “저 골리앗을 꺾는 사람은 나라의 반을 주고 공주를 주고 세금을 감면한다.” 아무도 안 나간다. 어린 다윗이 나갔다. 돌멩이 다섯 개를 들고 나갔다. 다윗은 다른 것을 봤다. 다른 말을 한다. 골리앗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빌어 다윗을 저주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든 진단이 끝나 버렸다. 골리앗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 다윗은 어떻게 봤나? 왕의 사위 된다고,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신들의 이름을 들고 오지 않았다. ‘아, 저게 귀신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 내게 승산이 있다.’ 내게 뭐가 있나? “탄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보기를 잘 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램넌트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 맞는가? 그게 제대로 보여야 한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장수가 없다.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다. 앓은뱅이의 문제를 종교로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자세히 봤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웃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님이 돈이 없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질문해 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능력이 변함없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 맞는가? 죄, 저주, 사단, 사망 이기신 이름 맞는가? 모든 문제 해결 맞는가?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번에 OMC장학금 수여식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워싱턴 임마누엘교회 램넌트 하나가 총체 장학금을 받았다.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답을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 하루에 세 시간 자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가? 상위 5개 대학에 풀 스칼라십으로 합격했다. 평생 희망을 가져도 못 가는 다섯 군데. 하버드, 예일, 다 합격했다. 예일대학으로 갔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어느 정도 믿는가? 완전히 믿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할 이름을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한 이름만 주셨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이루었다. 충분한 이름이다.

(4) 어째서 예수 이름 붙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 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다(요1:4).
- ②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전1:18).
- ③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가?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마10:1).
- ④ 어째서 앓은뱅이가 일어나는가? 그 이름 안에 치유가 있다(마8:17).
- 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신다고 했다(행1:8).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분하다. 그래서 비전 적어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증거를 주시겠다,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했다. 그리스도 이름은 충분한 이름이다. 증인 되시기를 바란다. 잘 안 믿으니까 자꾸 간증하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내가 미국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만 보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을 보느냐 했더니, ‘아빠는 그러면 저게 이해되느냐’ 하는 것이다. 나도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목목사님이 나를 미국 보낼 때 ‘나는 영어를 못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예스, 노’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말에 믿고 왔는데, 막상 immigration에 들어가니까, 너무 긴장되어서 ‘예스, 노’조차 안 되더라. 속았구나 싶었다. (웃음) 아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의 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인 놈이 왔다. ‘야, 우리 교회에 참 개성 있는 램네프트가 있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었다. “주어.” (웃음) 다음 주에 보니까 하얀 머리가 왔다. ‘야, 우리 아들 닮은 놈이 왔구나.’ 보니까, 우리 아들이다. (웃음) 매주 머리 색깔이 바뀐다. 그제 영적 상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자기가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국 20위권 대학에 가겠다는 것이다. 거기만 갈 것이니까, 다른 데는 원서도 안 넣을 것이라고 했다. 발표 날이 되었는데 아들 방에서 괴성이 들렸다. 시험 떨어져서 고합치는 줄 알았더니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소리였다. 그리스도로 언약을 딱 잡아야 한다. 우리 아들이 합격하고 나니까 모든 램네프트들이 용기를 얻었다. “서요한이 가면 우리도 그 대학에는 다 갈 수 있다!” (웃음) 정말 그 대학에는 기본으로 다 가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학이 평균 이하의 대학이 되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분한 이름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밤을 새야 한다. 진짜 어느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학교에서 잘된 아이가 복음 들어가니까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검정고시로 1년 먼저 대학 가게 되었다. 우리 아들이 간 그 대학이다. (웃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버드, 서울대가 보통 대학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축복하라. “당신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나는 램네프트를 미국에서 많이 키워 보았다.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증거를 계속 주셨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나의 한계, 나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으로 붙들면, 그 이름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다.

## 2.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 : 그 자체로 완전한 그리스도

얏은뱅이가 일어나니까 온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다. 어째서 일어났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다. 행3:16을 보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2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안에 계신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내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인데, 가문의 문제가 이런 것인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가정, 가문, 체질, 각인, 뿌리의 문제, 걱정할 것 없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 완전한 이름이다.

① 행3:13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말인가? 약속된 이름이다. 구약에서도 뭘 가지고 구원받았나? 그리스도라는 약속된 그 이름, 메시아라는 그 이름. 그 이름 붙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롱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윗이 세운 것이다. 참사랑교회 램네프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자존심이 이렇게 떨어진 시대에, 약속된 그 이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한 이름임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기를

촉원한다.

②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행3: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얏은뱅이를 일으켰다.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다. 행1:8,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증인이다.” 여러분이 써 놓은 비전에 어떻게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2)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얏은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니냐?” 생각은 자유지만, 틀린 말이다.

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빌2:6).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가?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인간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②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사7:14). 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려 하셨으니(벧전3:18).” 우리가 다 죄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도 여러분을 속죄할 수 없다. 의로운 피를 흘려야 한다.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된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만이 구원자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구원할 수 있다. 아에서 백 번 태어나도 안 된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

③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히9:12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피를 흘리셔야만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죄, 죽음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전15:3-4).

⑤ 반드시 약속하셨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이다(행1:8). 성령이 오셔야 죄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계복음화가 일어난다. 개인을 구원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오셔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세계복음화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

(3)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이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이 일에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의 증인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 3.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증인 :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발각 뒤집혔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한다.”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1) 말세 시대의 최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르게 한다.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① 행4:17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한국에서도 20년 동안 이단 누명 씌웠지 않다. 말세 시대 최고 영적 싸움은 그 이름의 싸움이다.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현장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한다.

② 행4:18,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③ 그때 신앙고백한다. 행4:19-20,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 살아가며 문제, 고난, 환난 생길 수 있다. 그때마다 말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도 능력을 확인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한다.

(2)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되기를 바란다. 보고 들었다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것 체험 못 하면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 세 번씩 부인하고, 부활하신 것 알고도 고기잡으러 간다. 혼자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라 사도들을 전도해서 함께 불신앙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했다? 막14:38에,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고 내게 확증시키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는 것은 기도 속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서 램넌트가 하루에 세 번 1분씩만 기도해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

① 오늘 복음 들은 램넌트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개인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회 때 개인기도 일곱 가지 말씀하셨지 않나. 우리가 가장 힘을 얻는 묵상기도, 행복을 누리는 정서기도, 현상갈 때마다 무시기도, 내적인 힘을 얻는 깊은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집중기도, 교회를 통한 예배기도, 세계를 정복하는 중보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2, 3시간 노는데, 1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다른 게 각인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한다. 나는 그래서 스마트폰 들어갈 때, 나올 때 파수꾼을 세웠다. 말씀 받고 들어가고 말씀 받고 나온다. 그러니까 딴 짓을 안 하게 된다. 지금 지하철 타면 90%가 스마트폰 잡고 게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최고 무기인 것 같다. 영혼, 시간, 다 빼앗고 있다. 일곱 가지 기도를 회복하라.

②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갔나? 모이는 기도, 여기에 들어갔다. 행1:14, 마가다랴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행4:24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행12:5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 한국의 큰 교회에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나온다. 합심기도가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다. 무릎 꿇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교회가 절간처럼 조용해지고 산에 있던 저 놈들은 도시 내려와서 목탁 두드리고 난리 났다. 모이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③ 초대교회는 흠여지는 기도를 전 현장에서 했다. 현장에서 권세기도를 한 것이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권세기도를 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행3:6).” 행16:16-18에서는 바울이 권세기도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개인기도, 모이는 기도, 흠여지는 기도로 복음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를 축원한다. 매일 여러분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 앓은병이 일으킨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복음 누리는 은혜 있기를 축원한다.

## 결론 : 미션

결론은 미션이다. 미국에서 내가 램넌트들을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고민했다.

(1) 일단 류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전도하는 제자로 세우라고 했다. 그래서 초중고 모든 아이들을 말씀운동으로 연결했다. 70군데 현장에서 초중고생들에게 말씀 공부해 벌어진단다. 사역자들은 금요일 야마치고 훈련했다.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 램넌트들에게, 미래를 오늘 보게 해 주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마다 비전트립을 했다. 실제 하버드대학 가 보고 교수님 만나고 전문분야 연구하도록 했다.

(3) 그리고 램넌트들, 중고생들이, 꿈을 물어보면, 한 107지부에 대답을 안

한다. 그런데 세상에 직업이 3만 가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적성검사를 해마다 하게 했다.

(4)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학업 아닌가. 그래서 학업캠프를 40일 쯤 집중해서, 대학 선배들이 와서 지도해 주고, 실제 성적을 끌어올렸단다.

(5) 그리고 메시지에 나온 말씀이, 오늘 미래를 보여주라고 했다. 그래서 램넌트들을 전부 멘토 시스템으로 연결했다. 대학, 사회로 나간 선배들이, 금요일 되면 철야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하루종일 멘토링을 하게 했다.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하면 그런 선배를 만나게 해 줬다. 그 후에도 선배들을 연결해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6)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새벽에 권사님이 전화를 해 왔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친구와 밤에 카레이싱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눈비가 섞여 온 날인데, 커브를 돌다 미끄러져서 치박은 것이다. 병원에 가 보니 이미 천국에 갔다. 죽은 것이다. 장례식을 그래서 치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까이 왔는데 차가 막혀서 안 가는 것이다. 이 램넌트 한 명이 친구가 얼마나 많았던지, 차가 한 500대가 온 것이다. 그날 복음을 전하고 500명에게 영접 초청을 했다. 램넌트는 죽어서도 전도하는구나 싶었다. 그러면서 느꼈다. ‘램넌트들은 성장 과정에서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중직자를 램넌트의 보호자로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 속에 램넌트를 5인 1조로 붙였다.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주일 되면 인사하고 기도제목을 확인하게 했다. 생일, 성탄절, 추수감사절에는 중직자가 램넌트에게 선물도 주고 관심과 기도 속에서 키우게 했다. 램넌트를 영적인 양아들로 삼게 했다. 이렇게 램넌트를 한번 키워 보았다. 그랬더니 램넌트들이 비전을 찾게 되고 복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한 램넌트는 주일마다 남자친구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아이겠는가. 인물이 예쁘다는 것이지. 키도 크고 좀 길면 한 달에 한 번 바뀐다. 그런데 꼭 데리고 오면 나한테 소개를 하더라. 그래서, “주일마다 소개하지 말고 결혼하게 될 때, 마지막 남자를 데리고 와라.” (웃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은혜를 받더라. 엄마가 하는 식당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날이 늦게 와서 그렇지,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하지 않느냐.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세계에서 최고 좋은 셰프 키우는 대학 총장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나를 여러분 학교에 입학시켜주지 않으면 너희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아닌가? 그런데 총장이 만담하러 오라는 것이다.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하라는 것이다.

램넌트의 그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중직자와 어머니들이 가슴에 품고, 보호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맞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자라는 램넌트는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나는 수없이 확인했다. 류목사님 메시지에 나왔지 않나. 메시지 때 돌아다니고 마약하는 램넌트들. 그러나 중직자의, 부모의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램넌트들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여러분 인생의 자산으로 삼고 도전하기를 축원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램넌트들이 오늘은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가 램넌트의 기도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충만을 주시고, 그 그늘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램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램넌트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충분함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함을 매일 체험하는 램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임을 매일 체험하는 램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램넌트들이 참사랑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